

광주극장과 함께 만나는 8월의 명작 감상기회

미술사 다룬 다큐 시리즈 특집

‘제프쿤스, 그 은밀한 초상’ 등 일본 거장 ‘오즈 야스지로’ 작 20세기 명화극장 ‘폭풍의 질주’ 한국독립영화 ‘수카바티’ 다채

광주극장이 세계 명작을 남긴 화가들과 미술관을 다룬 명품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8월에도 이어간다. 미술영화 이외에도 명작고전, 독립영화 등 다채롭게 준비해 여름방학 시즌을 채운다.

광주극장은 보티첼리, 라파엘로, 우피치 미술관 등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화가들과 미술관을 다룬 명품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지난 5월부터 매월 1편씩 소개하고 있다. 8월 상영이 네 번째 시리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가이자 논쟁적인 예술가 제프 쿤스의 숨겨진 가족사와 작품 세계를 그린 ‘제프쿤스, 그 은밀한 초상’이 상영된다. 미국의 현대미술가, ‘포스트모던 키치(kitsch)의 왕’으로 불리며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한 풍선개(Balloon Dog) 등이 대표작이다. 프랑

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작품을 전시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프 쿤스는 현존하는 예술가 중에서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 상영했던 ‘보티첼리. 피렌체와 메디치’도 관객들의 꾸준한 재상영 요청에 힘입어 오는 26일부터 다시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르네상스 미술의 상징이자 천재화가 보티첼리의 예술 세계와 그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린 다큐멘터리다.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오즈 야스지로(1903~1963)의 대표작 3편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획전 ‘오즈 야스지로는 자신만의 단정하고 엄격한 미장센 속에 인간의 순환적 삶을 영화에 담아내 영화예술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번 기획전에 상영되는 작품으로 먼저 ‘만춘(1949)’은 부녀간의 세밀한 감정을 특유의 정제되고 정갈한 미장센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두번째 작품, ‘오차즈케의 맛(1952)’은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평범한 맛을 내는 오차즈케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의 반열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포스터.

에 오른 오즈 야스지로의 대표작 ‘동경이야기’(1953)까지 3편의 영화가 각각 2회씩 상영된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20세기의 명작 영화를 상영하는 기획전 ‘2024 광주극장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의 두번째 상영작은 톰 크루즈 주연, 토니 스콧 감독의 레이싱 영화 ‘폭풍의 질주(1990)’다. 영화는 오는 28일 일요일 오후 3시30분에 상영된다. 과거 명성을 떨친 레이서 해리

는 자동차 경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콜(톰 크루즈)을 알아보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경쟁자 로디와의 경주에서 큰 사고를 당한 콜은 슬럼프에 빠지는 한편, 병원에서 만난 클레어와 사랑에 빠진다.

한국독립영화파트로는 서포터즈, 장애인, 돌봄의 시간, 조선인 여공 등을 주제로 한 영화 네 편이 준비돼 있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2004년 K리그를 뒤흔든 안양 LG치타스 연고지 이전 사태 이후, 팀을 되찾기 위해 나선 서포터즈 RED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여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영화는 2004년 안양 LG치타스가 갑작스레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한 사태를 배경으로, 오늘날의 FC안양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곁에 머무르며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보냈던 서포터즈 RED의 시간을 유쾌하게 조명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사)실로 암사람들이 공동제작한 조재형 감독의 장편영화 ‘똥 싸는 소리’도 8월 1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영화 ‘똥 싸는 소리’ 일도 사랑도 잘 해내고 싶은 하반신 마비의 여성 장애인 ‘미숙(임도윤)’의 삶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광주영화

영상인연대가 직접 제작과 배급을 맡아 열악한 지역영화계의 한계를 돌파한다.

8월 7일 개봉하는 ‘사인’은 박석영 감독의 신작이자 다섯 번째 장편이다. 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혼자 된 여섯살 ‘예선(장해금)’ 앞에, 엄마에게 버려진 여섯살 아이 ‘새별(배우 송지은)’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외로움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낸다.

같은 날 개봉하는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일제강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본의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삶과 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외에도 이민가 가정 출신의 ‘자하야 지우야니’가 지휘자의 꿈을 이뤄 나가는 감동 실화 ‘디베르티멘토’,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말을 잃은 채 살아가는 피아니스트 ‘폴’의 이야기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재개봉, 외판 시골집, 아버지를 도와 양분을 치는 12살 소녀 ‘젤소미나’가 겪는 마법 같은 여름을 그린 ‘더 원더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상영작 시간표는 광주극장카페(<https://cafe.naver.com/cinemagwangju/16644>)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미술관 여름밤 즐긴다

내일부터 매주 수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 야간 개장을 통해 여름밤 관람객들과 함께 한다.

절찬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시,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 명작’의 관람 시간을 24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연장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매주 수요일 여름밤 중의공원 산책과 함께 명작 관람의 기회를 얻는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야간 개장은 ‘2024 여름특별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에 이어 결정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월 15일까지 본관 제1-2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우주의 언어-수’는 예술에 투

영된 수학적 매커니즘을 전시를 통해 조망해 보는 전시다. 세계 섹션으로 나뉜 전시에서는 함수, 기하학, 수 데이터, 블록체인 등 예술과 접목된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접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제3-6 전시실에서 여는 ‘한국미술명작’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명작 미술을 총망라해 톺아보는 전시다. 국내의 주요 국립미술관·문화재단과 개인컬렉터들의 소장품을 대여해 전시작을 꾸렸으며 김환기, 이우환, 오지호, 천경자, 허백련 등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이이남 작 ‘신은 수학자였을지도 모른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넓은 장충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현대사 연극 ‘뽕야’

9월 28~29일 ACC 예술극장

모두에게 잊혀진 ‘넓은 장충한 자루’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현대사 이야기가 연극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 공연으로 연극 ‘뽕야’를 9월 28~29일 이틀동안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뽕야’는 역사를 ‘찌떡’을 궁리만 하던 드라마 작가가 역사를 ‘관통한’ 장충을 만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작품이다. 1945년에 만들어진 99식 장충한 자루가 주인공이 되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한다.

김은성 작가가 집필하고 김태형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초연했다. 이어 2023 한국연극 베스트7 선정과 제61회 K-시어터 어워즈 대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오는 9월 28~29일 이틀동안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연극 ‘뽕야’ 한 장면. ACC재단 제공

‘뽕야’는 9월 28일 오후 6시와 9월 29일 오후 2시 공연하며, 관람권은 R석 6만 6000원, S석 4만 4000원이다.

관람권은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

서 예매할 수 있다.

한편, ACC재단에서 기획한 ‘ACC 초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및 계기성에 적합한 우수 공연을 발굴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극단 ‘오스카와 장미할머니’ 공개 오디션

30일까지 원서접수

광주시립극단은 기획공연 출장 연극 시리즈 I ‘오스카와 장미할머니’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오는 31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면접이다.

합격자는 오는 8월 2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출장 연극 시리즈 I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는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틀로 죽음을 바라보는 연작 소설 중 첫 번째 작품이다.

광주시립극단은 창단 후 꾸준히 야외극

시리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출장 연극 시리즈 I’을 시작으로 다시 관객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친화 공연 사업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김지훈 광주시립극단 연출이 연출하는 이 작품은 오는 10월 3일 광주예술의전당 그라제 축제를 시작으로 10월 5일 서구문화센터, 10월 7일 광주디자인진흥원, 10월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